

(2026년 9월 23일 수요일 5면)

해외연수보다 민생입니다



▲박지선 의원
(위례동·장지동) = 고유가·고환율·고물가로 인한 주민과 자영업자의 고통에 동참하기 위해 2026

년도 송파구의 회 공무국외출장 예산 1억 5300만원 전액을 반납하고, 이를 민생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 예산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

다.

전국 지자체 의회가 해외연수 예산을 반납·삭감하며 고통 분담에 나서는 상황에서, 출범한 지 두 달 된 제10대 송파구의회 역시 해외연수를 서두르기보다 송파의 현 현안과 예산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.

단순 외유성 연수를 지양하고, 구정 파악과 정책 과제 발굴이 완료된 후 실질적인 정책 수립으로 이어지는 '정책연수'를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.